2018년 4월 24일 노트 중간 백업

대표적으로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곧 단행본 발간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이라는 주제의 대규모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북미의 대표적 경제학자들이 저자로서 참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과거의 전기와 같은 일반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경제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1]](#footnote-1)

특히, 머신러닝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수요를 늘려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2]](#footnote-2)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기술혁신의 결과와 같이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3]](#footnote-3) 단기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득을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알파고 쇼크의 장본인 구글 딥마인드팀은 지난해 인간 최고수들을 격파한 ‘알파고’를 압도하는 새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를 공개했다. 이세돌 9단을 격파한 ‘알파고 Lee’의 경우 7개월 간 기보 데이터를 학습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 고수들과 대국을 거치면서 실력을 키웠다. 반면에, ‘알파고 제로’는 인간과의 대결이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72시간을 스스로 대국하여 실력을 쌓은 후 ‘알파고 리’와 대국한 결과 100전 100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 박사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알파고 제로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문직에도 바둑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중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숙련/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던 패턴도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재의 교육과 훈련 제도도 기술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최대한 보완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예가 될 수 있다.

1. Ajay K. Agrawal, Joshua Gans, Avi Goldfarb,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 2018 [↑](#footnote-ref-1)
2. James Bessen(“AI and Jobs: The Role of Demand”), Austan Goolsbee(“Public Policy in an AI Economy”), Jason Furman(“Should We Be Reassured If Automation in the Future Looks Like Automation in the Past?”) 등이 대표적 저자와 연구들임. [↑](#footnote-ref-2)
3. Daron Acemoglu, Pascual Restrepo(“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Work”), Anton Korinek, Joseph E. Stiglitz(“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Income Distribution and Unemployment”) 등이 대표적 저자와 연구들임. [↑](#footnote-ref-3)